

위대한 정신을 만나는 캠퍼스 속 여행지, **KAIST** 미술관

사람들은 미술관에 왜 갈까? 미술관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 하나는 연구와 교육이다. 미술관과 박물관은 중요한 작품과 유물을 보관하며 이를 탐구하는 곳이다. 다른 하나는 경험이다. 미술관은 언어가 아닌 체험을 통해 생생한 미적 경험을 하는 공간이다. 미적 경험에는 사전지식이나 선행 경험을 반드시 요하지 않는다. 미술관에서의 경험이란 수많은 작가들의 삶과 생각이 담긴 작품을 통해 여러 시대와 장소를 직관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보자. 예술가나 미술사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미술관에 왜 갈까? KAIST와 같은 과학 기술 교육연구기관이 설립한 미술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융합이 상식처럼 되어버린 지금에 와서는 케케묵은 이야기긴 하지만, 과학과 예술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긴밀한 관계다. 과학은 세계의 작동방식에 대한 해답을 구한다. 예술은 세상의 존재 이유에 대한 해답을 구한다. 표현 방식이나 문제의식은 달라보일지 몰라도 결국 대상은 같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이야기했듯,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세상의 경이로움”이며, “경이 모든 과학과 예술의 원천”이다. 그래서일까, 역사에 흔적을 남긴 위대한 과학자들은 예술에서도 다재다능했다. 종종 피아노와 바이올린 협연을 펼치곤 한 마리 퀴리와 앨버트 아인슈타인, SF 소설 작가로도 활동한 영국의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 오케스트라에도 참여할 만큼 출중한 타악 주자인 리처드 파인만, 그래픽 아티스트로서 자신만의 디자인 회사까지 차린 화학자 헤럴드 크로토, 개인전을 여러 차례 열 만큼 다작한 화가인 프레더릭 벵팅까지, 과학자들은 예술을 연구와 삶에서 떼놓을 수 없는 요소로 여겼다.

이들이 특수한 사례도 아니다. 2008년 미국 미시건주립대의 로버트 번스틴 교수 연구팀이 1901년부터 2005년까지의 문헌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과학적 성취가 높을수록 예술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스틴 교수는 이를 두고 성취가 많은 과학자일수록 예술 활동이 삶의 부수적인 취미보다는 연구자로서 삶의 본질적 요소, 세상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KAIST가 미술관을 설립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KAIST는 지난 12월 17일 KAIST 미술관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KAIST 미술관은 고 정문술 제12대 KAIST 이사장 겸 미래산업 회장이 기부한 기금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근 5년간 준비해 왔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캠퍼스의 일상 속에서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장려하고자 한다”며 “창의적 사고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영감의 장이자 휴식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미술관 공개와 함께 한국 실험미술계의 선구자인 이승택 작가의 상설 전시도 공개된다. 이 작가는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 설치, 조각, 회화, 사진, 대지미술, 행위미술을 넘나드

는 작품활동으로 ‘비조각’이라는 신개념을 정립했다. 이처럼 미답지를 탐사해 온 이력이 KAIST의 운영철학과 맞닿아 있어 KAIST 물리학과 초빙석학교수로 초청되기도 했다. 이번 KAIST 미술관의 개관 기념 상설전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대표작 ‘지구놀이’를 비롯한 33점이다.

이승택 작가의 독특하고 자유로운 ‘비규격’ 작품세계에 맞춰 교직원 회관 로비를 전시 공간으로 활용했다. 로비는 일반적인 사각형 단층 벽 구조에서 벗어나 1~2층이 구분 없이 융합되어 공존하는 입체적인 공간이다. 이로 인해 틀에 구애받지 않는 작가의 작품세계와 예술철학이 공간 전체에 충실하게 구현됐다.

KAIST 미술관은 이밖에도 KAIST가 그간 기증받은 작품과 유물을 전시해 대중에 선보일 계획이다. 여기에는 정문술 회장으로부터 기증받은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 작가의 ‘Tribute to Dean Winkler (1995)’ 등 41점의 미술 작품을 포함하여 300여 점이 있다.

최근에는 아주 특별한 작품도 KAIST의 컬렉션에 추가됐다. 무명의 독지가로부터 한국 대표 서정 시인 윤동주 작가의 초판본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詩)』를 기증받은 것이다. 이번에 기증된 초판본은 현재 널리 알려진 1955년 재판본과 달리, 시인의 절친인 국문학자 정병욱 교수가 1948년 발간한 판본이다. 정병욱 교수는 윤동주 시인으로부터 직접 육필 원고를 받아 간직하고 있다가 해방 후 시 31편을 수록하여 정식 출판했다. 문학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판본인 만큼 KAIST 구성원을 비롯한 방문객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석현정 미술관장(산업디자인학과 교수)은 “신설된 KAIST 미술관은 별도 시간을 내 일부러 가야 하는 곳이 아닌 캠퍼스 내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중심부에 있는 만큼, 교내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함께할 수 있는 ‘과학 예술의 융합 공간’으로 자리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서 석 관장은 “앞으로도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을 주제로 실험적인 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술관 건물은 학술문화관 후면에 연면적 2,611㎡(약 790평) 3층 규모로 증축됐다. 1층의 제1전시실(정문술홀), 2층의 제2전시실(개방수장고)과 제3전시실(미디어홀)을 관람할 수 있다. [KAIST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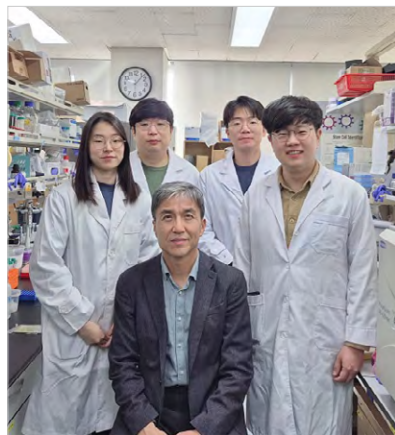
- 01 이승택 작가 기증 작품 상설 전시 모습. 이승택 작가의 작품을 보다 잘 전시하기 위해 입체적인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 02 KASIT 미술관 외관 전경 모습. 미술관 건물은 1층 제1전시실, 2층의 제2전시실과 제3전시실을 관람할 수 있다.
- 03 KAIST 미술관 내부 전시 모습. KAIST는 미술관을 통해 과학과 예술의 접목을 위한 구성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 04 무명의 독지가로부터 기증받은 윤동주 작가의 초판본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詩)』. 해당 기증품은 2025년 1월부터 KAIST 미술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 세계 최초 소형 초저온 냉각장치 개발

KAIST 기계공학과 정상권 교수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자기장 변화를 이용해 절대온도 0도에 가까운 온도를 구현하는 방식의 단열 탈자 냉동기와 흡착식 냉동기를 통합한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구현, 절대온도 0.3K(-272.85℃)의 냉각 온도를 달성했다. 이 단열 탈자 냉동기는 값비싼 헬륨-3을 냉매로 사용하지 않아도 작동할 수 있다. 또한 기체 압축과 팽창을 통해 기존 냉각 방식과 달리 자성물질의 자기적 압축과 팽창을 가능케 하는 초전도 자석으로 시스템을 소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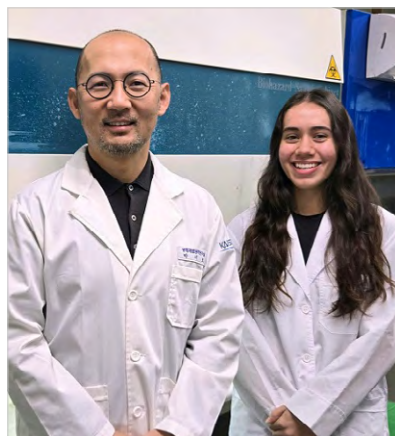
>> 더보기



+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려 치료하는 원천기술 개발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조광현 교수 연구팀이 대장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그 상태만을 변환시켜 정상 대장 세포와 유사한 상태로 되돌림으로써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대장암 가역 치료를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해당 기술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가역화하는 것이 우연한 현상적 발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 유전자 네트워크의 디지털 트윈을 제작·분석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접근해 이뤄낼 수 있음을 보였다.

>> 더보기



+ 항암 면역세포를 체내에서 직접 만들 수 있다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박지호 교수 연구팀이 항암 세포치료제의 항암 치료 효과를 체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mRNA 치료제를 개발했다. 해당 치료제는 강력한 암세포 사멸 능력을 기반으로 현재 유망한 항암 세포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종양 침윤 T세포를 종양 내에서 직접 증식시켜 항암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기존 세포치료제 대비 뛰어난 환자 접근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고형암 치료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더보기



+ 탄산음료의 치아 부식 예방 방법 과학적 규명

KAIST 신소재공학과 홍승범 교수팀이 화학과 변형 연구팀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소아치과학교실 및 구강미생물학교실과 협업해 은다이나민플루오라이드(SDF)가 치아 표면에 불소 함유 방어막을 형성시켜서 콜라의 부식 작용을 효과적으로 막는 메커니즘을 나노기술로 규명했다. 콜라에 노출된 치아는 SDF 처리 여부에 따라 표면 조도 및 탄성계수 변화에 큰 차이를 보였다.

>> 더보기



+ 美케이던스社, 80억 상당 Si반도체 장비 우리 대학에 기증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인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코리아(Cadence Design Systems, 이하 케이던스)가 반도체 설계 특화 장비인 '케이던스 팔라디움 제트럼'을 KAIST 기증한다고 밝혔다. 케이던스는 1995년 반도체 설계교육센터(IDECE) 설립 이후 KAIST에 EDA 툴 라이선스 및 실습 교육을 약 30년간 지원해왔다.

>> 더보기



+ GS칼텍스, 다문화 우수 인재 양성 4억원 기부

KAIST가 GS칼텍스와 '다문화 우수 인재 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다문화 인재 후원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GS칼텍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대학에 2024년부터 4년 동안 매년 1억 원의 발전기금을 출연한다. 이 발전기금으로 다문화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다문화 유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KAIST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마음 교육봉사단'과 접목해 다문화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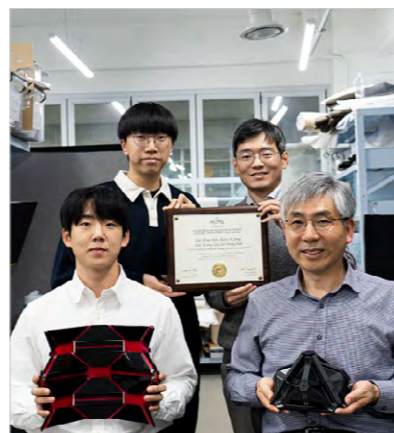
>> 더보기



+ '로봇스케치' 도쿄 데뷔, 최우수 심사위원상 수상

도쿄 국제 포럼에서 열린 '시그그래프 아시아 2024'의 하이라이트인 리얼타임 라이브에서 KAIST 산업디자인학과 배석형 교수팀이 기계공학과 황보제민 교수팀과 협업해 개발한 '로봇스케치' 기술이 최우수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는 'DRB-KAIST 스케치더뮤처 연구센터'의 지원 아래 이루어진 결과다. 해당 센터는 3D 스케칭, AI, VR 기술을 결합해 전문가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도구를 연구하며 첨단 기술과 디자인의 융합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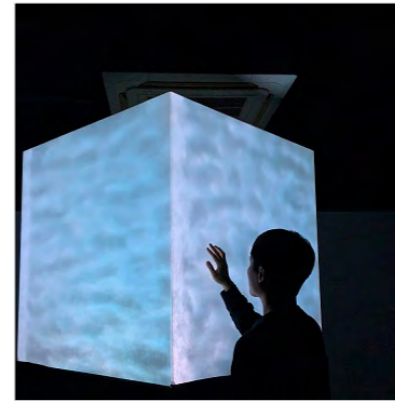
>> 더보기



+ 한재흥 교수팀, 미국기계학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KAIST 우주연구원장 항공우주공학과 한재흥 교수 연구팀이 미국기계학회(ASME)의 기계 디자인 저널에서 2023년도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항공우주공학과 김태현 박사과 박사과정 장건익 학생, 이대영 교수가 참여한 논문은 2023년도에 출판된 150여 편의 논문 중에서 기계설계 분야의 최고 우수 논문으로 선정됐다. 국내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로 본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 더보기



+ 산업디자인학과, 인사동 그라운드서울에서 전시 개최

KAIST 산업디자인학과가 인사동 최대 규모의 전시 공간인 그라운드서울에서 'Crossing Over: Innovation and Boundaries' (혁신을 위한 교차의 경계에서)란 주제로 산업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과 이색 아이디어들을 대중에게 공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산업디자인학과와 교수진과 학생들이 고안한 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선보여졌다.

>> 더보기



+ 미존(未存)에서 AI 판사는? 2024 큐데이 개최

지난 12월 4일, KAIST는 대전 본원 학술문화관(E9)에서 '2024 큐데이(Q-Day)'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큐데이'는 신문화전략 'QAIST'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구성원을 격려하고, 창의 정신 및 질문하는 캠퍼스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됐다. Q(창의교육), A(연구), I(국제화), S(기술사업화), T(신뢰와 소통) 등 5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43개 팀 총 84명이 특별 포상을 받고 그중 9개 팀이 특별강연한다.

>> 더보기



+ 창업원, 2024 기후테크 전국민 오디션 우승팀 선발

KAIST 창업원이 주관한 '2024년 기후테크 전 국민 오디션' 파이널 라운드 행사를 개최하고 최종 8팀을 선발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굴하고자 추진됐다. 대회 결과 일반리그에서는 KAIST 박사과정 안빈 학생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종 선발된 아이디어는 창업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 더보기



+ 신약 개발 기업 HLB 그룹과 전격 협력

KAIST는 미래 첨단 바이오 의료시대를 대비해 연구 투자 및 산학협력 확대를 위해 HLB(주)그룹과 포괄적인 상호협력 협약을 맺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암, 파킨슨병 등 난치성 질환 신약을 발굴하기 위한 교육과 연구를 전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두 기관의 협력은 난치성 뇌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KAIST 신약개발 교원창업기업인 (주)HLB 뉴로토브의 기술개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더보기